

지도력 부재가 결국 '만신창이 경선' 낳다

민주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고무줄 잣대' 적용 논란·파행 얼룩... 책임론·선거전략 후폭풍 예고

민주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각종 시비로 얼룩지고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지도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방법과 시기 등에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등 경선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각종 논란과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충분한 명분 축적과 사전 준비 없이 개혁공천과 정치적 상징성을 이유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박광태 광주시장 경선을 20여일을 앞둔 지난달 18일 "외지인들이 광주시장 후보를 뽑는 것은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배심원제 도입을 비판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배심원제 50%와 전 당원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변칙적인 경선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부실한 경선 관리도 이어졌다.

배심원제의 시행체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보안을 이유로 전문 배심원 참여 단체와의 정치 협약이 무산되면서 '중앙당 개입설' 등 온갖 루머가 난무했다. 또한, 특정 후보 캠프로 전당원 여론조사 기관 명단이 유출되면서 다시

어른조사 기관을 선정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배심원들에 대한 보안도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혈연·지연·학연 등을 통해 경선 직전 일부 시민배심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 배심원들은 특정 캠프와의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용, 이석형 예비 후보의 등록 지연으로 전남지사 후보경선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도 중앙당 지도부의 '고무줄 잣대'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실시하기로 했던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TV 토론 등을 이유로 이달 17일로 연기되는가 하면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이 17일 이후로 미뤄진 것이 파행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당원 선거인단 구성, 여론조사 방법 등에 대해 지도부가 예비 후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지도력 부재'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두 후보가 끝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결국 경선이 무산된다면 초유의 '경선 보이콧'이라는 오명도 남게 되며 박준영 예비 후보는 경선 없이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결정된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 논란에 이어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무산된다면 정치적 뒷날이라고 자부했던 호남권에 있어 민주당 후보들의 고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호남을 토대로



정세균의 표정

지난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에서 강운태 후보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되자 참석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기정 국회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외지배심원 '이미지 투표' 지역 민심 반영 안돼

■ 광주시장 경선서 드러난 배심원제 문제점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시민공천배심원제도가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지역 당원의 여론조사결과와 시민배심원 투표가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지역 민심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당원 여론조사결과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강 의원이 시민배심원 투표에서 3명의 후보 중 3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의 정서와 후보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외지 배심원들이 결국은 2시간여의 토론회만 보고 사실상 '이미지 투표'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배심원제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작 이날 경선대회에서도 후보를 선출하는 배심원들의 질문시간 등은 짧고 토론회만 지켜 본 뒤 투표하는 것에 그쳤다. 배심원 표의 향배가 후보 선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작 후보를 선출할 배심원들의 질문시간은 전체 토론회 시간 2시간 20분

중 10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2시간 가량의 한 차례 토론회를 보고 투표에 참여함에 따라 말을 잘하거나 감성적 접근에 나서는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 사정과 예비 후보들의 정치적 성장 과정을 자세히 모르는 외부 배심원들은 이 같은 현상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배심원들은 각 후보의 자기 소개서와 정책 공약 실천 계획서, 범죄·과세·범죄경력증명서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객관적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 투표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문배심원으로 참여한 한효정(여·44·서울시 강남구 역

삼동)씨는 "학연·지연에 관계없이 각 후보의 정책 공약과 자질 등을 판단해 후보를 선출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과 개인 신상정보를 담긴 객관적인 자료만 보고 투표를 했다"면서 "배심원들의 질의 시간이 부족했고, 토론회시간도 너무 짧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배심원제는 불과 200~400명의 배심원들이 한 차례의 토론회를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라며 "지역을 발로 뚫은 후보보다는 토론회에서 이미지가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이구분 없는 여론조사 강운태에 유리

■ 광주시장 후보 경선 분석

강운태 의원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예상을 뛰어넘어 13%P나 이용섭 의원에 앞선 것은 전당원 여론조사의 특수성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당원 여론조사는 광주광역시 민주당원 전체를 상대로 성별, 나이, 지역별 구분을 두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일단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원들의 나이 구성이 진보적 성향인 20~30대 청년보다 40대 이상의 중장년 및 노년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강운태 의원이 유리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대, 30대, 40대 등 나이 구분이 적용됐다면 상대적으로 개혁적 이미지가 강한 이용섭 의원이나 정동채 전 의원에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당원 숫자도 강 의원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남구의 경우, 인구수에서 광산구에 비해 뒤지지만 당원 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구 비례가 적용되는 당원 여론조사 실시했다면 인구가 많은 광산구를 기반으로 하는 이용섭 의원이 더 유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여성 당원에서도 강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타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강 의원이 남성 당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낮은 여성 당원의 표를 더 흡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전당원 여론조사가 아닌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실시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전당원 여론조사는 강운태 의원에 상당 부분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롭고 획기적... 타 지역에 관심 긍정적"

외지 배심원 김석영씨



"새롭고 획기적인 방식인데다 지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배심원의 역할이 너무 적어 아쉬웠다."

지난 10일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에 중앙당이 선정한 외지(전문)배심원으로 참석한 김석영(여·27·경기도 부천시·한국여성유권자연맹 간사)씨는 "중앙당의 하향

식 공천 방식에서 벗어나 후보를 시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다른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외지배심원 2시간만에 후보 판단 무리"

지역 배심원 윤연산씨



"현장에서 후보들의 토론회를 직접 듣고 내 손으로 광주시장 후보를 뽑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지만, 외지에서 온 전문배심원들이 2시간 만에 후보를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배심원 윤연산(50·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건축업)씨는 "원래 지지하던 후보가 있었는데 토론회를 직접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토론회를 잘 한 후보에게 한 표를 행

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지인들이 짧은 시간 내에 후보를 판단하고, 각 후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서 "전문배심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한국부동산권설팅

구 합

- 삼거동 - 5000평이상/관리지역/차량진입가능
- 연산동 - 오키동(20-25만원)/800평정도/투자용(그린벨트상관없음)
- 벽진동 - 창고용지/500평정도
- 마트자리 - 10억(현금6억)

매 도

- 삼거동 - 2만3천평/상당후결정
- 선암지구 - 1850평/40억 /대로집
- 중흥동 - 200평/대로집(100%대출가) 상당후결정
- 산수동 - 215평/6억5천/대로집(100%대출가)
- 내방동 - 280평/7억8천/대로집(100%대출가)
- 담양대덕면매산리 - 3000평/물류센터적합 /대로집(100%대출가)
- 우산동 (광송간 도로) - 800평정도/65만원(평당)
- 세하동 - 700평/50만원(평당)/도로집
- 광산구 신용동 - 1500평/50만원 도로집 (물류창고 적합)
- 만평 중앙지구 수원지구
- 삼무지구 주유소 - 약 350평/매매11억/공시지가(5억 7천만원)

한국부동산 권설팅

농성동 641-5 서구청 맞은편(1층·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

신축상가임대(매매)

- 대지면적 : 281㎡(93평)
- 건축물면적 : 618㎡(184평)

층	권장업종	비고
1	회센터, 식음점, 편의점, 약국 채식/고기뷔페, 보쌈	132㎡ (40평)
2	피부관리, 의료 (가정의학, 한의원)	171㎡ (52평)
3	독서실, 의료 (가정의학, 한의원)	132㎡ (40평)
4	사무실, 학원, 당구장, 병·의원	132㎡ (40평)

※ 매매가 9억(용자없음)

■특징

광천동 대림 e편한세상 1096세대와 기존 주택 세대수(2,000세대)가 인접함으로써 입점 상권 가치 및 저렴한 임대 가능

탑공인중개사

임대 062)368-0789
문의 010-3602-4840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